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의 밝은 미래는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결정된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한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사절단 이 파견된다. 그러나 점령지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을 목을 매 처형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던 상황에서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섰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 정신에 감복하여 그들을 모두 살려주게 된다.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귀족의 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튼스쿨을

꼽는다. 이튼스쿨은 명실상부한 귀족 학교이다. 영국의 총리를 20명 배출하고 영국의 왕세자들도 나온 학교가 이튼스쿨이다. 하지만 이튼스쿨이 명문학교로 꼽히고 존경을 받는 데에는 다니는 학생이 귀족자제이기 때문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1,150명, 2차 대전에서는 750명의 사망자가 있을 정도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참전을 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을 귀족으로 인정하고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영원한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예를 들어보자. 케네디가(家)는 케네디의 4대조 할아버지 때 아일랜드 감자기근이 발생하여 여자 친구와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신대륙으로 떠난 이민자이자 극빈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4대만에 미국사회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는 그들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케네디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상머리 교육처럼 아침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 스크랩한 것을 식사시간에 토론을 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케네디가 닉슨과의 대통령후보 토론에서 닉슨을 압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작지만 꾸준한 교육의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문이 있을까? 12대 400년간을 최고의 부와 덕망을 유지한 가문이 경주의 최부자댁이다. 그들의 집안에 내려오는 철학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사방 배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만석 이상을 하지 마라!

보릿고개가 있고 기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때는 곡간을 풀어서 사 람을 살리고 이때에는 땅을 사서는 안 된다. 부자들이 땅을 가장 헐값에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아사자가 생길 때이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만석 이상을 하지 마라는 것은 풍년이 들면 그것을 농사지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에는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아가 싸운 집안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도 경주 최부자 집의 이러한 생각을 배워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6.25와 같은 변란의 사태에서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곳이 부자집이었는데 그 집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조들의 그러한 현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집안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야겠다.*

6.25와 같은 변란의 사태에서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곳이 부자집이었는데 그 집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조들의 그러한 현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집안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야겠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우리 몸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호흡기 질환자를 노리는 메르스는 현재로는 치료제(백신)가 없으니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는 서로간의 예절도 중요하다. 기침을 할 때 손이 아닌 소매로 막고 하고,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 평소 에 내 몸은 내가 꾸준히 관리하는 승리신문 애독자들은 요가와 함께 걸 근육과 속 근육을 강화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어떠한 전염병도 이겨내는 건 강한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효능: 배, 등, 허리를 튼튼하게, 신장 기능 도움, 요통에 효과적, 자율신경계 활동 정상화, 독소배출촉진, 붓기 빠지는 효과, 검갑골 척추기립근 견관절을 이완시켜 목 뒤와 어깨 쪽에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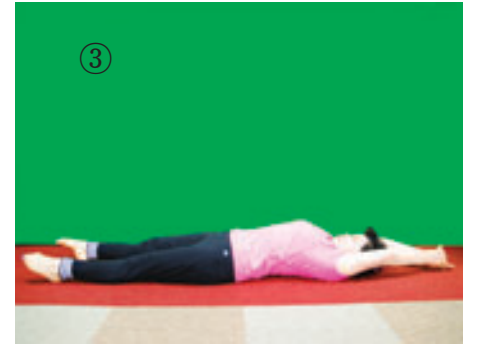
동작①: 네 발 자세로 위치한다. 호흡을 들숨 날숨으로 반복한다. 10초 유지.

동작②: 네 발 자세에서 한 팔 한 팔을 머리위에 위치하고, 숨을 마시면서 배꼽, 가슴, 어깨 순으로 바닥으로 밀착시킨다. 어깨에 힘을 빼고 엉덩이와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균형을 잡는다. 1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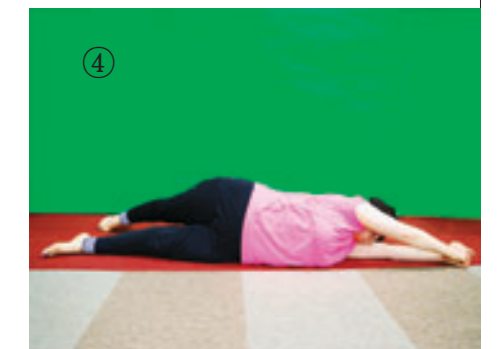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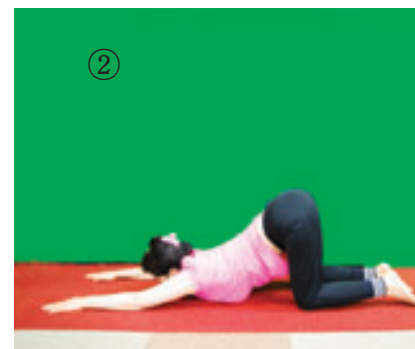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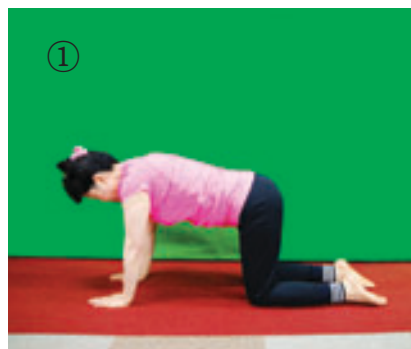
누워서 오실금, 골다공증 예방

동작③: 누워서 다리는 골반너비로 뻗어 발끝을 펴준다. 양손은 위로 감지 손가락이 나오도록 깎지를 낀다. 전신을 바닥에 붙이고 호흡과 함께 상 하체를 쭉 펴준다. 20초 유지.

동작④: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만 가슴 쪽으로 어깨를 넘긴다. 상 하체를 교차시키고 골반이 하늘을 향한다. 양발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3회.*



네 발 자세로 견상자세



도덕경 해설



道生一 도생일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도덕경 42장 해설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 그것은 비단 성경상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잔존하는 인류 문화와 문명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여기 도덕경 속에서도 그러한 숨은 이치와 논리가 담겨져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 장에서는 그림과 형상물이 아닌 수리(數理) 속에 천지창조, 음양의 분화, 우주만물과 인간의 탄생, 그 심원한 뜻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우주만물의 현상과 인간의 삶을 관찰해 보면 하나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음양으로 이원화된 세계에서는 최빙 사장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의 일원화된 세상, 음도 양도 아닌 중성의 성질로 홀로 독립된 자유

한 상태가 되면, 모든 고통과 총체적 문제가 사라져 온전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 회복된 도의 세계다.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물질의 구조와 원리를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수천 년을 뛰어 넘어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道生一(도생일):**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무의 세계(우주만물과 인간 탄생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의 물질세계(현상세계)가 만들어졌고, **一生二(일생이):** 하나에서 둘이 나오며,

하나의 세계에서 둘(음양의 세계)로 나

뉘어졌으며, **二生三(이생삼):** 둘에서 셋이 나오고, 이원의 음양의 세계에서 셋, 그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三生萬物(삼생만물):** 셋에서 만물이 나오는 것이다 셋에서 인간과 우주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萬物負陰而抱陽(만물부음외포양):**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껴안고 있으며, 만물은 음이 양을 에워싸고(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 **中氣以爲和(중기이위화):** 중심 기운이 조화롭게 한다 음도 양도 아닌 중성의 기운으로써 조화(질서, 균형)를 이루고 있다. **天下之所惡(천하지소악):** 천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唯孤寡不穀(유고과불곡):** 유독 고독하고 홀로이면서 여물지 않는 곡식 같은 것인데 고독하고, 과부되고, 여물지 않는 곡식 따위로

而王公以自名也(이왕공이자명야): 이것을 마음의 주인(왕)임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라 일컫는다 마음의 참된 주인은 자신을 스스로 고통한 자, 과부, 여물지 않는 곡식 따위로 이름 할이다. **物或損之而益(물혹손지이익):** 물질은 혹 없애지거나 더해지기도 하고 **益之而損(익지이손):** 더해지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음양의 이원화된 성질 속에서는 물질 제거법 변화무쌍한 삶의 양태를 나타냄을 이른다. **故人之所教(고인지소교):** 옛 사람들이 가르친 이치, **亦讒而教人(역이교인):** 역시 평의된 이것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외다. **故強梁者不得死(고강양자부득사):** 고로 뻗뻗하게 고집 센 사람은 죽고자 하여도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순수본성(중성이) 주인 된 사람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음양의 이원화된 성품은 죽은 나무처럼 뻗뻗하고 굳어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我將以爲學父(아장이위학부):** 나는 이것을 배움의 아버지로서 따르고 있소.

김주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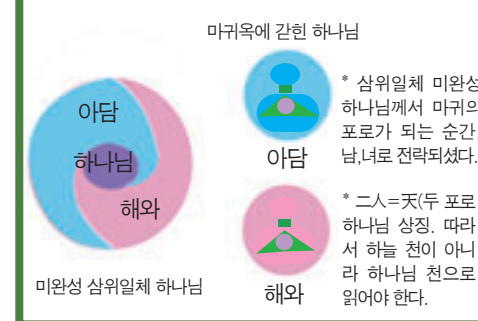
허만욱 승사 칼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문자(文字)를 주신 참뜻

필자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문자를 부여하신 뜻은 결코 인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써가 아닌 듯하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속에 원시반본(原始返本) 사상을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인류가 싹 틔워서 잃어버린 에덴동산의 회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려고 하였다. 문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

러면, 그들은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승리자, 완성자의 완벽한 해설



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나 대중들이나 모두가 마귀육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정도령께서는 깨우쳐 주셨다. 이와 같이 천(天)자의 뜻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초상신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재에 대해선 더욱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천자문(千字文)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하늘 천(天)인데 한자대전에 실린 해설에 의하면 하늘 천, 만물의 근본 천, 조물주 천, 진리 천이라고 되어 있다. 위에서 '만물의 근본 천'이라고 해석하였으니, 만물의 근본은 생명이요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을 뜻하며, 진리 천(天)이라고 해석하였으니, 진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이므로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부산제단 : (051)863-6307 | 마산제단 : (055)241-1161 | 사천제단 : (055)833-7866 | 광주제단 : (062)524-4555 | 神戶祭壇 : (078)862-9522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London : (0208)894-1075 |
| 수원제단 : (031)236-8465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진주제단 : (055)745-9228 | 포항제단 : (054)292-5455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Philadelphia : (215)722-2902 | |
| 안성제단 : (031) 673-4635 | 김해제단 : (055)327-2072 | 울산제단 : (052)291-1849 | 순천제단 : (061)744-8007 | 청주제단 : (043)233-6146 | 久米米祭壇 : (0942)21-4669 | | |
| 평택제단 : (031)652-6438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충주제단 : (063)533-7125 | 진해제단 : (063)533-7125 | 금마제단 : (063)853-6673 | 岐阜祭壇 : (0584)32-1350 | | |
| 이족제단 : (031)672-6786 | 대구제단 : (053)474-7900 | 영천제단 : (054)333-7121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261-6338 | 大阪祭壇 : (06)6451-3914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